

## 2018년 7월 21일 "(성경의 큰 숲 보기 20) 전도서: 창조주를 기억하라"(전 12장)

오늘은 지혜의 길로서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말씀하는 전도서를 개관하겠습니다.

### [1] 전도자가 찾은 것

전도자는 세상의 어떤 것도 해 아래 새 것이 없고 어떤 낙도 보람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지혜를 찾았는데, 그것도 덧없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세상에서 이보다 좋은 것이 없는 두 가지를 찾았는데, 그것은 먹고 마시는 것, 그리고 자기가 하는 수고에서 스스로 보람을 느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2:24)

여기서 먹고 마시는 것이 뜻하는 것은 살아가면서 필요한 기본적인 의식주 중에서도 생명을 직접 관여하는 일상에서 먹고 마시는 것을 말합니다. 또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하여 보람이 느낀다는 말은 삶의 참된 동기부여를 얻었다는 뜻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으로 육신의 힘을, 삶의 동기부여로 인해 마음의 힘을 얻는 것은 실로 중요한 것입니다.

전도자가 이것을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길 수 있었다는 말은 다른 모든 것들은 있어도 좋고, 없어도 큰 문제가 안 된다는 뜻입니다. 전도자가 찾은 이 두 가지 외에 중립적 가치가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예: 스포츠(레포츠), 외모, 학위, 아이에 대한 훈육 등) 어떤 것에 대해서든 중독과 집착 또는 과도한 열정을 가지면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주변에 해를 끼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 [2] 전도자가 본 또 하나의 것

또 전도자는 삶의 또 한 측면에서 실패와 고난과 눈물을 주는 부정적인 것도 피해갈 수 없음을 보았습니다.

#### 7:14-15(읽음)

현실에는 많은 난제가 있습니다. "왜 나쁜 일이 선한 사람들에게 일어날까? 왜 아기 때에 죽고, 젊은 부모가 암에 걸리고, 부당하게 목숨을 잃고, 테러는 반복되며, 많은 아이가 부모를 잃고 굶어 죽는가?" 어느 누구도 시원한 답을 줄 수가 없습니다.

Sandra Richter(성경학자)는 인간의 DNA가 이런 일들은 잘못된 것임을 이미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부당한 죽음, 굶주림, 학대와 갈취는 어떤 설명을 붙이지 않아도 잘못된 것임을 모두가 압니다. 그 이유는 사람에게 아직도 하나님의 형상이 잔존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의 세계 속에서 의도되지 않은 일임을 누가 말해주지 않아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7:16(읽음)** 너무 의롭게 살려는 사람은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을 비판하고 자기를 주장하며 살게 됩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행동하고 말할까에 갈등을 느끼다가 결국 관계에 금이 가게 합니다. 전도자는 이런 차원에서 초월하라는 것입니다.

**7:17(읽음)** 너무 자기 중심적으로 살지 말고, 또는 되는 대로 놔두라는 식으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삶에 채워야 할 의미/가치를 모르고 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7:18(읽음)** 너무 의롭게도, 너무 악하게도, 다른 말로 바꾸면, 좀 덜 의로워도, 조금은 나빠도 괜찮으니 양쪽을 수용하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인간은 어차피 우리 식대로는 완벽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경외)하면 '이래야만 한다'는 극단을 피하고 지혜의 길을 열어 갈 수 있습니다.

### [3] 하나님을 경외함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진정으로 살아나려면 사람이 창조될 때, 에덴에서 받은 것과 잃은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째 아담이 잃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되찾아 주시는 구원을 이해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되찾아 주시려는 것은 창조의 영원한 생명의 축복(영생)입니다. 즉, 에덴에서 약속되었던 축복의 삶입니다. 이 축복을 향한 길은 이 땅에서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다 때가 있어 일어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초연하고 주님을 경외할 때 발견할 수 있습니다.

**3:1-8(1-3 절) 그리고 11 절 -> 14 절**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할(경외할) 수 밖에 없다.' 또 **17 절**, '의인과 악인 모든 행위에 대한 심판이 있지만 사람은 그 심판 너머의 영원을 사모하는 존재임을 알아야 한다.' 따라서 이렇게 모든 것을 지으신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이 살 길입니다.

"기억하라"의 뜻은 상대의 존재와 가치를 깊이 깨닫고 그를 사랑하고 우대하라는 말씀입니다. 창조주를 떠나서는 전도자와 같이 참으로 좋은 것을 찾을 수 없고, 또 일어나선 안 된다고 믿는 나쁜 것을 수용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터득하려면 창조주를 많이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분을 알기 위해 나의 헌신과 애심으로 그분 앞에 예배자로서 서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삶의 두려움으로부터 도피하지 않고 창조의 영광을 회복하며 사는 길입니다.

**<맺음>**

전도서는 하나님의 창조에서 이탈하여 힘들고 의미 없어 보이는 세상을 살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회복하는 길을 가르치는 책입니다. 삶에서 좋은 것, 나쁜 것을 다 수용하면서 창조주를 기억하는데 애쓰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심령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눔의 질문>**

1. 전도자가 찾은 좋은 것 두 가지를 당신도 가장 좋은 것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까? 그 외에 더 좋은 것이 있다면 나누어 주실 수 있을까요? 나의 신앙 안에서 자유롭게 말씀해 봅시다.
2. 하나님을 경외하고, 창조주를 기억하는 일이 왜 중요합니까? 나는 창조주를 기억하는 삶을 살기 위해 해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